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한 번 더 공지합니다 : 박해석 집사(카자흐 목장), 탁금란 집사(한나목장), 조영숙 집사(헝시바목장), 박미란 자매(엘리목장)
3. 2019년도 '후반기 세례자(입교자 포함)'를 위한 양육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9/28)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목장(권용기 집사)이며, 다음 주일(9/29) 식사담당은 엘리목장(신경미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상 3권입니다. 2층 예향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 EM(Every Meeting) 목상집 10-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로 문의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권당 3,000원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예배기도(오전)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이강정 집사	조정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강숙여 권사	오승연 권사	박숙이 권사	이연미 권사
주일식사담당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토요일청소		몽골목장 (9/21)	카자흐목장 (9/28)	캄보디아목장 (10/5)	키르키스목장 (10/1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지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김묘상 ■ 전도사: 박일선 ■ 시무장로: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신태식 ■ 반주자: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 *성시교독 교독문 68번(이사야 40장 3-8절) 다 같 이
- *경배찬송 23장(통 23장) 다 같 이
- *참회기도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216장 (통 356장) 다 같 이
- 대표 기도 이현호 집사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딤후 1:3-14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 봉헌 기도 인 도 자
- 말씀 선포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때'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다 같 이
-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 이
-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00 인도 : 허영진 목사

-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박일선 전도사 다 같 이
-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 같 이
- 찬 송 257장(통 189장) 다 같 이
- 기도 강숙여 권사
- 성경봉독 오후 1:5-9 인 도 자
- 특별찬양 '그런 사랑' 이준화 집사
- 설교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인' 허영진 목사
- 기도 허영진 목사
- 교회소식 인 도 자
- 찬 송 449장(통 377장) 다 같 이
-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20:1-18 '부활의 주를 만나자'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과학'(98)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후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에 연(連)하여

지근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와 맞난(?) 밥 한 끼 먹기로 했다. 살짝 찾아온 몸살로 힘든 것처럼 후배 목사도 피로감이 역력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염려하고 안쓰러워했다. 몸 상태가 너털너털해도 우리를 정작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다. 수시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힘겨움 때문이다. 목회자라고 해서 삶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작은 생채기에도 힘들어 하며 아플 때가 더러 있다. 살다 보면 맑고 화창한 날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흐린 날도 있고, 비 오고 거센 바람도 불고, 천둥 벼락이 치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한 젊은 어부가 있었다. 물질을 하던 그는 바다에 해초가 너무 많아 물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된다며 투덜거렸다. 그러자 젊은이의 불평을 말없이 듣고 있던 늙은 어부가 한참 후 말했다. "물론 바다에 해초가 많으면 물고기를 잡는 데는 힘들겠지. 하지만 해초가 없으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새우 새끼들이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물고기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해초를 탓하지 말게나."

해초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원하는 어부에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보인다. 해초를 헤치면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에 따른 수고로움 때문이다. 더욱이 물결이 거세고 파도가 높은 날이면 해초가 큰 방해물이 되어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초가 많은 곳에는 물고기도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드리운다면, 오히려 해초를 도구 삼아 물고기를 잡는 유능한 어부가 될 수 있다.

살다보면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걸림돌은 고난과 역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다윗은 큰 곤경에 처해 매우 고통스러울 때마다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린다고 말했다(시 6:2-3). 그러나 다윗은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 믿음에 연(連)하여 내가 나로 단단히 버티고 설 수만 있어도 괜찮은 인생이지 싶다.

Written by 허영진